

전북교육청 · 공무원노조연대 노사협의회 상견례

학교 행정실 법제화 조례 제정 등 44개 의제 협의 예정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지난 5일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노사협의회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협의회 상견례는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노사협의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학교 행정실 법제화 조례 제정,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협상, 학교시설 안전 및 관리를 위한 인력 활용, 소수직렬 표준화 업무분장 및 처우개선 등 총 44개 의제에 대해 상호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노사협의회 진행을 위해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기능을 나누고 대표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5명 동수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는 노측 12명으로 하되 사측은 해당 안전에 따라 노사 양측 간 시간 협의하여 참석위원 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양측 대표들은 협의회를 통해



전북교육청과 지방공무원노동조합연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지난 5일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노사협의회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간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지금까지는 지지와 노력을 함께하자고 다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서 백혈병 환아 돕기 열기 '후끈'

공무원 · 주민들 사랑의 손길 '줄이어'

무주군 무주읍에 거주하는 소아급성백혈병 환아 최모(6)군을 돕기 위한 무주군민들의 움직임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지역사회보조협의회(위원장 이정은)가 군청에서 모금운동을 벌인 가운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 공무원들은 "아직 어린 아이가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길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십시일반 모아진 이웃들의 마음이 아이 치료에 도움이 되고 가족들이 힘을 내는데도 용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장에(청각 2급)를 가진 아버지 최 모 씨(47)

와 수어통역사인 어머니 소 모 씨(42)의 3남 중 막내로, 위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홉 살 형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곱 살 형이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팀 김성우 팀장은 "고액의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군에서는 의료비 관련 차상위 본인부담감감 지원 신청과 밀반찬 지원, 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아암환자의 표비지원을 신청하는 등 아이의 치료와 이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무주군내 최 군의 안정적인 치료와 가족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사업 및 반디나눔 등 민간자원을 연계 ·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 관심이 요구되는 장애, 질병, 다재다능을 지속적으로 찾아 살피는데 정성을 쏟을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복도시' 군산시, 2019년 어린이 부모학교 개강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 군산시가 서부아동보조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5일 2019년 어린이 부모학교 를 개강했다.

군산시 어린이 부모학교는 '부모교육 7시간, 아동행복 70년'을 목표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군산시가 공동 협의하고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부모학교 운영을 기관별, 생애주기별로 안내, 신청, 교육이 진행되던 것을 통합형으로,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실습 중심으로 운영한다.

부모학교는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해 기본교육으로 조별, 최성애 박사와 함께 하는 7시간 강정교를 실시한다.

또한 수요자를 중심으로 육아 공감 토크쇼, 숲 놀이체험, 부모 및 가족연수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연계교육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자녀와 동등한 입장에서 아이들과 공감 하기 위해 부모가 스스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진안군,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교류 활동

진안군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활발한 교류 활동이 기대된다.

진안군은 지난달 귀농귀촌인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동아리는 삼색공예, 영화, 전통음식전수학교, 코바늘, 영상제작소 등 전년도 활동 우수 팀과 신규 신청 팀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개시에 앞서 지난 5일 진안군귀농귀촌인협의회 소회의실에서 각 동아리 모임을 대표자들과 함께 사업설명과 활동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동아리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 활동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갈등 예방과 화합을 이끌어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귀농 정착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북은행, 김제지역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과 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라경)는 전주한옥마을에서 김제지역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30명을 초청하여 2019 제2회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2017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을 해 오고 있다.

프로그램에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 조사서의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 경제교육을 시작으로, 한지로 전통을 만드는 공예체험, 한복을 입고 전주한옥마을의 명소를 관광하는 문화체험이 제공됐다.

특히, 전북은행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이벤트로 펼쳐진 대형비빔밥 퍼포먼스는 한국 전통음식의 맛과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은 "이번 문화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다문화가정 다정다감 문화교실, 웰컴투 코리아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무주경찰, 식목일 맞아 경찰서 직원 봄맞이 청사 환경정리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경찰서 직원 30명이 참여해 봄맞이 청사 환경정리를 실시했다.

이날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에 심어있는 나무의 결과지를 쳐내 다듬고 배수로에 쌓인 해물은 낙엽 등을 말끔히 치웠다.

경찰서는 군민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시설이용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환경정리를 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결론

▲이종원(박점순씨 장남)군 · 전미희(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 채혜선씨 처녀)는 일사: 13일(토) 낮 1시, 장소: 진안북부미아산 마미온 농촌 테마파크

전북농협, 원예농협 이병각 대리 이달의 농협인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주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는 이병각 대리가 농협중앙회에서 시상하는 최근 '이달의 자랑스러운 농협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농협인상은 전국 농협과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실적, 근무자세, 자기개발 등을 평가해 농협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이병각 대리는 지난해 전주원에농협 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며 4품목의 161명의 농업인을 조직하는 등 수출전문 공산출하회를 집중 육성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을 통해 2017년 대비 수출판매금액을 249% 성장시켰다.

또한, 2018년 생산량이 급증하여 시세가 급락한, 전주 · 완주 지역의 2억2,300만원 상당의 양파를 수출하는 등 수급량을 조절하는 노력을 통해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했다.

그는 우수한 업무능력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했으며,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성실한 모습을 보이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점도 자랑스러운 농협인상'을 받는 데 일조했다.

이병각 대리는 "아직 배울 게 많은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농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맡은 일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남원경찰 도동지구대, 아광조끼 · 신호봉 · 순찰모 전담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대장 이동진)는 지난 5일 도동 자율방범대(대장 정철)를 찾아 방범지원 물품인 아광조끼, 신호봉, 순찰모 등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동자율방범대는 평소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시간대에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수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범지역 자율순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선도 등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경찰, 교통안전 교통홍보담당 교통안전 홍보

남원경찰서(서장 최홍범)가 찾아오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에는 남원서 교통홍보담당 이 교통안전 홍보가이드인 조휴여 청문감사관과 쌍교동에 위치한 심수정을 방문해 교육을 전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날 교육에서는 심수정 센터를 찾은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어르신 보행자 사고유형을 소개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험 3원칙 '서다-보다-걷다'를 강조하는 등 보행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남원서 교통안전 홍보가이드로 활동 중인 조휴여 청문감사관은 사랑가, 홍보가를 개사한 관소리를 활용해 읍무운전교 및 안전띠 매기 등 교통법규준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홍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동계농협 직원 감사장

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에서는 지난 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동계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농협직원 최00는 관내 주민 김모씨가 지난달 25일 오후에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6천만원을 대출 해주겠다는 낚시 남자의 전화를 받고 대출조건인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하니 1,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농협에서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주민이 타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이서영 서장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금융기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이 상호 합심하여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무진장소방서, 청명 · 한식 특별경계근무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2019년 청명 · 한식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청명 · 한식 기간 중 성묘객, 상춘객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목적이 있다.

무진장소방서 관내 특별경계근무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 활용 산발 예방 활동 전개 ▲산발 등 화재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대형 산발 대응태세 유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 등이다.

또, 무진장소방서는 등산로 · 공원묘지 주변 소방력 전진배치로 인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발진화 장비 정비 ·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산발 예방 홍보 · 초동대응 체계에 만전을 기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형 산발 발생을 대비하여 소방행기 긴급출동 태세 확립을 하였으며,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화 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준비에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수=고환호 기자